

‘최강 한파’ 전남 서부권 지자체 수돗물 공급 비상

광역상수도 망 끝자락 무안·신안 일부지역 단수
유압 낮고 유입량 적어 배수지 수위 10%도 안돼
주민들 불편 호소...생수·생활용수 등 공급 나서

최강 겨울 한파로 장흥댐 광역상수도 망에 의존하는 전남 서부권 지자체의 수돗물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목포시를 비롯한 무안·신안·영암 등에 따르면 최근 영하권의 기온이 계속되면서 수도관의 동파와 누수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영암군과 무안군에서는 재난문자를 통해 “송수관 누수 등으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빨리 모아하기와 샤워시간 줄이기 등 절수를 유도하고 있다.

목포시에서는 수돗물 사용량이 평소보다 20% 이상이 늘어나고, 영암군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계량기 동파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신고 중 70~80%는 가정내 계량기 동파지만 20~30%는 광역상수도 망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관로에서

도 동파가 발생했다.

장흥댐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는 덕정정수장의 물 공급량을 늘렸다고 밝히고 있지만 광역상수도 망의 끝자락인 무안군과 신안군은 더욱 심각하다.

무안군에서는 현재 무안을 일부와 삼향읍 농공단지, 몽탄, 현경, 운남면 등의 2000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주민들은 보일러 등 난방기 가동은 물론 생활용수마저 사용하지 못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군에서는 단수지역과 일부 고지대에는 생수를 지원하고, 소방서의 협조를 받고 물차 4대를 임대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장흥댐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9개 배수지의 저수용량이 평상시 60~70%를 유지했으나 현재 10% 안팎에 머물러 있다”면서 “유입량이 현저히 낮아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 해제를 거쳐 장흥댐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신안군 지도읍와 증도면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수압이 낮고 배수지의 유입량은 평상시보다 현저히 낮아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않다.

신안군 관계자는 “배수지로 유입되는 물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서 저수율이 10%에도 못미치는 저수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누수지역을 찾아 보수하고 있으나 배수지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

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박근혜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방송 시청하는 시민들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을 확정된 재상고심 선고 공판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스쿨존 참변’ 법원 두살 아이 사망사고 현장검증 검토

법원이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일가족이 치어 2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 현장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

시 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보기 어렵다’는 A씨 변호인 측 주장을 고려해 운전석 내 시야 확보 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시야 확보에 따라 A씨의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이 제출·상영한 A씨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차체가 높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일시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국민청원 “자폐증 아들 갈 곳, 죽는 길 밖에” 엄마의 절규

“스무 살 아들 시설·병원서 모두 외면...갈 곳 만들어 달라”

“자폐 1급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도 정신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스무 살 아들을 둔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청원 글이 올라와 동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 100명 이상이 동의해 관리자 검토 청원으로 변경됐다.

엄마 A씨는 “저희 같은 사람은 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요? 제발 답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힘없고 능력없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힘이 돼주세요. 갈 곳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글을 맺었다.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청원 글을 올

린 A씨는 전남 나주에 거주한다. 아들 B(20)씨는 자폐1급으로 말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능력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군은 여섯 살 때부터 최근까지 13년을 영광에 소재한 장애인 돌봄 시설 두 곳에서 생활하며 함평에 소재한 장애인학교에서 초·중·고교 교육과정까지 마쳤다.

하지만 그동안 B군을 돌봐 주던 시설에서 성인이 되자 퇴소를 요구해 집에서 머물고 있다.

시골에서 작은 방앗간을 운영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B씨 부모는 아들을 다시 돌봐 줄 시설과 병원을 백방으로 수소문 해 찾아갔지만 모두 허사였다.

찾아 간 시설과 병원에서 ‘성인이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입소할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도 자폐1급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B씨 부모는 열악한 시설의 자택에서 교대로 아들을 돌보며 방앗간 일까지 분담해서 하느라 주문 받은 떡 배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B씨 아버지 C씨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스무 살 된 자폐1급 아들을 돌봐 줄 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절망뿐이었다”며 “늦었지만 국가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케어해 줄 시설을 꼭 설립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지금은 (내)몸이 성해서 아들을 돌보고 있지만 늙고 병들면 누가 아들을 돌봐 줄까 생각하면 눈물이 앞선다”고 말끝을 흐렸다.

최이슬기자

전남 무안,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국내 총 58건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가금 사육농가(체협농원 포함)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58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다.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는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조치가 취해진다. 발생지역 소재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 등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민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